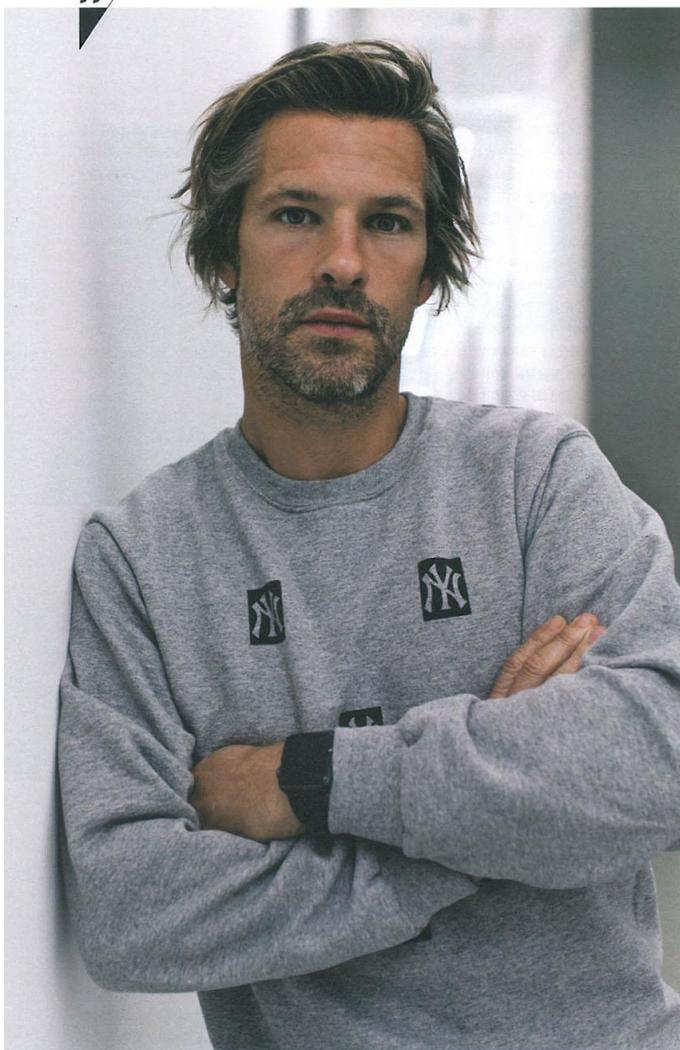


W EYE



폭력의 시

금속성의 굉음을 내는 듯한 모터사이클 페인팅은 에런 영을 뉴욕 미술계의 록스타 자리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폭력적인 이미지 아래서 건네는 의미심장하고 시적인 질문이야말로 이 아티스트의 진짜 목소리에 가깝다.

photos by LEE JAE SUNG



5년 전쯤 에런 영을 만난 적이 있다.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첫 한국 개인전을 위해 그가 서울을 찾았을 때다.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오프닝 하루 전의 전시장은 꽤나 어수선했다.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몇몇 작품이 곳곳에 엉겨주춤하게 놓여 있었다. 인터뷰가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나는 주변을 하릴없이 둘러봤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 설치 전 잠시 벽에 기대어 세워둔 한 점을 내가 가방, 혹은 옷자락으로 건드렸던 모양이다. 종잇장처럼 찌그러진 바리케이드에 도금을 해서 완성한 금속 조각이었다. 육중한 쇠덩어리가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순간의 소음은 과연 엄청났다. 하지만 내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가 그보다도 컸을 거다. 당황해서 사과를 증명하려는 내게 에런 영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보다시피 이 바리케이드는 진작부터 망가진 상태니까요.”

지난가을, 뉴저지에서 재회한 아티스트에게 나는 수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지부터 물었다. 에런 영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이 눈만 깜빡거렸다.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괜히 들은 것 같지 않아요? 하하.” 그러고는 드물긴 하지만 가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 때마다 라우선버그의 일화를 떠올립니다. 한번은 갤러리로 운송하던 중에 작품이 손상됐나 봐요. 온갖 오브제를 붙이고 붓질을 더해 완성한 컴바인 회화였습니다. 작가의 반응은 ‘그 우연도 이미 작업의 일부가 됐다’는 거였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예요.”

추상표현주의의 전통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론을 찾은 로버트 라우선버그는 에런 영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인터뷰는 자신의 대표작인 모터사이클 페인팅 역시 그의 작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금속 패널 위에 타이어 껍적을 새겨 추상적인 이미지를 완성하는 록 콘서트 같은 퍼포먼스는 이 젊은 작가를 뉴욕 아티스트의 스타로 만들었다. “라우선버그는 회화를 기존의 방식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저 역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탐험하고 싶습니다.” 미술계의 엄숙주의를 과감하게 도발하는 위트는 에런 영의 작업에서 붓이나 물감만큼이나 중요한 도구다.

온통 무채색인 아티스트의 공간은 아틀리에라기보다는 정비소에 가까워 보일 정도였다. 붓과 물감 대신 용접 토치와 자동차 오일을, 캔버스 대신 싸구려 가방과 작업복을 활용한 신작들을 잠시 걸논질했다. 에런 영의 ‘새로운 시도’들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만 훑어도 남다른 속도와 추진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묻고 싶었던 건 작품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다. 일단 그의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1. 작업실 한쪽 벽의 문구는 에런 영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그래픽적 요소를 연상시켰다.
2. 모터사이클의 바퀴 자국을 활용한 번아웃(Burn-Out) 페인팅의 퍼포먼스 이미지 2007. Greeting Card, Park Avenue Armory, New York Photo | Kai Regan / Courtesy of Art Production Fund
3. 2010년에 열린 국제갤러리 개인전 설치 전경. Photo | Sang Tae Kim
4. Untitled, 2010 Brass Panel with 24 Karat Gold, Burnt Rubber, Motor Oil. Each Panel: 243.6 x 100.3cm Photo | Sang Tae Kim
5. 작업 중인 작품의 일부.



〈W Korea〉 인스타그램에 동행이던, 그러니까 다른 '에런 영'들에 관한 뉴스를 꾸준히 캠퍼해서 업로드하고 있다. 어떤 목적의 리서치일까?

Aaron Young 제비삼이 하는 거다. 인스타그램은 이용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손에대는 플랫폼이다. 이미지로 가상 공간 안에 각자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 인젠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내 이름을 구글 알러트(Google Alert)에 입력해두고, 뉴스 메일이 오면 읽어본 뒤 포스트하기 시작했다. 어떤 에런 영은 와이오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또 다른 에런 영은 뉴욕 업스테이트에서 살인 사건에 휘말렸다. 특정 이름을 살마리로 내 개장에서 나오는 관련이 없는 내용을 수집하는 일종의 실용인 셈이다. 인스타그램이라는 미디어의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나의 작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나? 막연하게 생각은 하

있을까? 깊은 기쁨에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페인팅을 하고 있다. 물을 뿌려가며 작업을 해서 색상이 번지고 흐려진 상태다. 마치 야외에서 비를 맞은 것처럼 말이다. 뉴스 영상을 보면 유럽 난민 가운데 비슷한 기쁨을 들고 있는 수가 꽤나 많다. 그래서 내게는 이 오브제가 아주, 혹은 이들의 상징처럼 느껴진다.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빨래 가방이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가 가진 전부일 수 있다. 전시장의 책상 아래나 한쪽 구석에 누군가가 던져놓은 것처럼 설치하면 어떨까 싶다. 테스트 단계이긴 하지만 브라운 조각으로도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볼 생각이다. 기존에 선보인 블로트치 페인팅도 계속하는 중이다. 좀 더 컴비트 회화에 가까운 결과물이 될 거다. 모터 오일을 사용하는 작업도 있다. 캔버스를 바닥에 깔아두고, 여러 차들이 지나가며 얼룩을 떨어뜨리도록 했다. 각기 다른 차종에서 흐른, 여러 종류의 오일 자국이 겹쳐지면서 새로운 이미

지가 완성될 것이다. 9월에 시작했는데, 연말까지 결과물을 두고 보고 한다.

스튜디오 풍경이 일반적인 미술가의 아틀리에와는 꽤 다르다. 빨래 가방과 불에 그을린 옷가지와 각종 공구까지, 오히려 정비공의 공간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럴 거다. 내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과 자주 협업을 한다. 모터사이클 라이더, 스케이트보드, 철판 제작자... 그래서 스튜디오 밖에서의 작업이 많다. 이곳은 그렇게 준비된 재료들을 가져와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정리하는 공간이다.

에런 영의 작업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건 역시 모터사이클 페인팅이다. 이 시리즈는 여전히 진행 중인가? 계속 이 야기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게으른 자기 복제를 하고 싶지는 않으니깐.

아트를 재학 시절에 모터사이클 페인팅을 처음 시작했다고 들었다. 어떻게 떠올린 아이디어였나? 로버트 라우선버그의 두 작품으로부터 힌트를 얻었다. 그는 트럭 바퀴에 감정 잉크를 칠하고 그 궤적을 종이에 찍어 페인팅을 완성한 적이 있다. 빌립 데 쿠닝의 소묘와 하나를 지워버린 다음 빈 캔버스를 전시하기도 했다. 페인팅을 기존의 전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의도였다. 라우선버그는 당대의 추상표현주의를 좇는 대신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를 추구했던 작가다. 새로운 시도는 내게도 무척 중요한 문제다. 예술학교 재학 중 내 작품을 발표할 차례가 됐을 때 모터사이클 페인팅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라이더에게 말을 볼 수 없을 때까지, 혹은 타이어가 달아 빠질 때까지 원을 그리며 회전하도록 요구했다. 그렇게 번아웃을 하는 동안, 그 장면을 천장에서 내려다보며 영상으로 기록했다. 드로잉이 진행될수록 비디오 화면에는 연기가 차 올랐다. 즉 작품이 완성되자마자 동상이 지워져버린 셈이다. 라우선버그의 작업을 내 방식대로 재해석하고 싶었다.

모터사이클 페인팅 연작을 비롯한 여러 작업이 남성적이고 공격적이거나, 때로는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내가 마초이즘을 숭배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싸우면 연어 타지는 쪽에 가깝다(웃음). 내 흥미를 자극하는 건 폭력 아래 흐르는 감정과 긴장이다. 그 안에서 사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다. 촬영이 진행 중인 카메라를 '죽을 때까지' 발로 차는 작업을 한 적이 있다. 기록된 영상을 보면, 이렇다한 풍경 사이 사이에 불안하게 덜컹거리는 손간이 끼어든다. 내게는 그게 살의 여정에 대한 비유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시에 강도 높은 폭력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된다. 상반된 요소들을 한데 뒤섞는 작업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면 폭력과 시차.

지금껏 카메라는 몇 대나 샅해봤나? 카메라를 차는 작업은 다섯 번 했다. 즉, 다섯 대의 카메라를 샅해낸 셈이다. 제작 과정이 매번 동일하기 때문에 장소가 차이를 결정짓는 프로젝트다. 그만큼 어디서 하는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로마의 콜로세움,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등에서 퍼포먼스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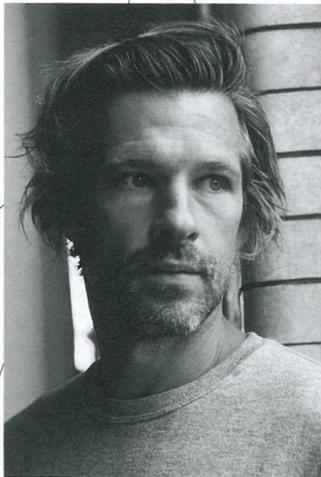
에런 영의 작업에서는 제작 과정도 결과물만큼이나 흥미로운 퍼포먼스처럼 느껴진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과정을 앞세우는 작업일까, 아니면 뒤따라 결과를 위한 작업일까? 매번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다. 명확한 그림 없이 우선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하나씩 실행할 뿐이다. 모든 선택이 겹쳐지면서 작품의 방향이 결정된다. 사실 나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호한다. 관람객이 전시된 페인팅만 보고도 그 제작 방식을 알아냈으면 한다. 과정과 결과를 별개의 것처럼 나누고 싶지는 않다.

새로운 작업을 구상할 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 최근에는 커다란 통나무를 우드 칩퍼로 질러 여러 개의 조각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그걸 전시장 벽면에 나누어 설치할 계획이다. 나는 단순함을 선호한다. '하나의 나무를 네 개의 벽

IMAGES PROVIDED BY VULKE GALLERY

폭력의 시

각종 공구와 미술 도구가 뒤섞여 있고 자동차 오일 자국의 붉은 그늘린 오브제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예민 영의 작업실은 언뜻 정예소에 가까운 풍경이었다. "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합니다. 모터사이클 라이더, 스케이트보드, 헬리콥터 제작자... 그래서 스튜디오 밖에서의 작업이 많아요. 이곳은 준비된 재료들을 가져와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는 이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소년이었다. 기계 자체를 숭배하지는 않았다.

《레벨》은 배우 제임스 프랭코가 호스트를 맡아 MOCA와 함께 기획한 그룹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하모니 코린, 폴 맥카시, 에드 루사, 더글러스 고든 등이 각자의 방식대로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을 재해석했다. 당신은 포르세 550 스파이더를 크레인에 매달아 올린 뒤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영상 작업을 선보였다. 제임스 단이 교통 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몰았던 것과 동일한 모델이다. 구멍을 미리 파둔 채 떨어뜨렸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차가 땅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매장 행위에도 비슷하고, 한편으로는 색스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제임스 단은 당대의 색스 신발이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연설을 곁들이고 싶었다.

미술 작가가 되기 전에는 영화감독이 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영화라는 매체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던 건 12살 때였다. 《이티》를 함께 보는데 할머니께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셨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영화의 힘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내게는 미술이 더 맞는 표현 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술로서의 영상 작업이 아닌 극 영화에 대한 호기심은 영영 잊은 걸까? 아니면 언젠고 다시 시도해볼 계획을 갖고 있나? 실제로 연출 제안을 받은 적이 있긴 하다. 한때 필름 스쿨을 다녔으며, 졸업 후에는 뮤직비디오도 몇 편 찍었다. 그때 학교와 현장에서 배운 내용은 영상 작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내가 선호하는 건 복잡한 서사보다는 짧고 간단한 형식이다. 그래서 비디오 작업 대부분이 원 소트로 마무리된다. 뭔가 강렬한 사건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을 포착하는 거다. 이렇다 보니 장면 극영화 작업에 대해서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뮤직비디오 연출 경력에 대해 들으니 문득 생각이 났다. 20대 초반에는 테크노 레이브 파티를 기획하는 일로 학비를 벌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미술 작가로서의 작업은 굳이 비유하자면 테크노보다는 헤비 메탈에 가까운 느낌이다. 청자로서의 예민 영은 어떤 취향일까? 최근에는 어떤 곡을 즐겨 듣나? 둘 메탈에 꽂혀 있다. 이상한 긴장감이 있는 음악이다.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듣다가 잠에 빠지기도 할 만큼 단조롭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은 적군을 공포에 질리게 하기 위해 특수한 주파수를 사용했다고 한다. 물론 별 효과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사운드가 둘 메탈과 꽤 흡사하다. 엔진 소리가 모터사이클의 굉음에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효과로서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



2014년의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서는 '빅 대디 케인(Big Daddy Kane)'이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 제목은 힙합 뮤지션의 이름에서 따왔다. 마이애미는 담은 허리케인의 가장 위성 사진을 프린트한 작업이었다. 이런 태풍에는 늘 사람 이름을 붙이지 않나. 게다가 마이애미는 합합 커뮤니티가 깊게 뿌리를 내린 지역이다. 이미지에는 접었다 펼친 종이처럼 보이도록 주름을 더하기도 했다. 딜러들이 찢어진 집지로 코카인을 포장한다는 이야기에서 착안했다. 소용돌이치는 허리케인은 흩뿌려둔 흰 가루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약과 합합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층위의 의미가 하나의 작품 안에 포개진 셈이다. 이러한 중의성은 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다.

말했다시피 작품 안에 의미의 레이어를 겹겹이 쌓거나, 관점과 거리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가 보이도록 트릭을 쓰기도 한다. 타블로이드에 수시로 등장하는 유명인의 모습을 초릿한 점으로 찍어 표현한 포드레이프 시리즈를 예로 들 수 있겠다. 관람객으로 하여금 눈앞의 광경을 계속해서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느낌이다. 린지 로한, 애먼다 녹스, 토나 히딩 등 유명한 스타들의 주인공들을 그 점도 페인팅 안에서 등장시켰다. 멀리서는 흐릿하게라도 형태가 눈에 들어오지만, 가까이 다가 가면 빈 캔버스 위에 점만 한 가득 찍혀 있을 뿐이다. 요란하기만 한 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사건이나 사람도, 관찰자와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곤 한다. 당신의 경우는 어떻게? 멀리서 보는 아티스트 예민 영과 가까이서 관찰하는 인간 예민 영은 얼마나 다른 존재일까? 가까이에서 접하는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웃음).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면을 보긴 하겠지만 말이다.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은 물론 작품 안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페인팅이나 조각에 갖든 나는 사실 치밀한 필터링을 거쳐 정제된 결과물이다. 일종의 아바타인 셈이다. 즉, 일상의 예민 영을 모르는 사람은 나를 나의 아바타로 착각할 것이다. ■

에디터 | 정준화